

# 고급감 극대화...제네시스 'G90 블랙' 나왔다

### 내·외장 블랙 색상 마감...진정성 있는 블랙 콘셉트 구현 3.5 터보 일렉트릭 슈퍼차저 기본 제공 최상위 경험 선사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대표 플래그십 세단 G90의 고급감을 한층 더해줄 최상위 모델 '제네시스 G90 블랙(Genesis G90 Black, 이하 G90 블랙)'을 최근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한다.

G90 블랙은 제네시스만의 진정성 있는 블랙 디자인 콘셉트 '제네시스 블랙'을 적용한 브랜드 최초 모델이며, 내·외장의 모든 부위를 블랙 색상으로 마감해 고급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외관은 크고 작은 장식적인 요소까지 모두 블랙 색상으로 마감해 캐릭터 라인과 형태감을 부각하고 제네시스 디자인의 본질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강조한다.

제네시스는 G90 블랙의 ▲전면 범퍼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 ▲전면 엠블럼 ▲DLO 몰딩 ▲브레이크 캘리퍼를 블랙 색상으로 구현하고, 전용 디자인의 21인치 다크 스피터링 휠과 전용 플로팅 휠 캡을 적용했다.

후면부는 트렁크 리드 중앙에 위치한 제네시스(GENESIS) 레터링 엠블럼을

다크 메탈릭 색상으로 구현하고 차명(G90)과 사륜구동(AWD) 엠블럼은 미적용해 제네시스 블랙만의 차별화를 꾀했다.

제네시스는 G90 블랙의 실내는 작은 부분까지도 블랙 색상으로 일관되게 마감해 더욱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G90 블랙의 내장은 ▲전용 세미 야날린 시트 커버링 및 퀵팅 ▲리얼 우드가 니쉬 ▲알루미늄 스피커 커버 ▲노브 및 스위치류 ▲도어 버튼까지 블랙으로 표현해 최고급 모델에 걸맞은 세심함을 더했다.

제네시스는 G90 블랙을 가솔린 3.5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사륜구동 단일 파워트레인 및 구동 타입으로 운영하며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패키지 ▲차량보호필름을 제외한 주요 고급 사양을 기본화해 최상위 경험을 선사한다.

제네시스는 단순한 색상 이상으로 진정성 있는 블랙 디자인 콘셉트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새로운 시도를 거듭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내·외부 모든 부위를 블랙 색상으로 마감해 고급감을 극대화한 'G90 블랙'을 출시했다.



'G90 블랙' 내부 모습.

제네시스는 빛의 세기나 반사의 정도와 무관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블랙 색상이 온전히 표현되도록 가죽과 봉제 실, 리얼 우드 가니쉬 등의 내장재를 엄

선택했으며, 각각의 소재는 서로 다른 질감을 지녔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져 제네시스만의 블랙을 완성한다.

G90 블랙의 판매 가격은 1억3천8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제네시스는 G90 블랙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제네시스는 G90 블랙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세부 품목까지 모두 블랙 색상으로 처리한 블랙 고객 전용 기프트 박스를 지급한다. 또한, G90 기본 멤버십 혜택에 더해 ▲제네시스 라운지 다이닝 경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미식 경험 ▲로버트 파커 와인 마스터 클래스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G90 롱휠베이스(LWB) 모델과 동일한 멤버십 혜택을 부여한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 블랙은 화려한 수식어구 없이 블랙을 가장 담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며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제네시스만의 블랙을 자신감 있게 구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네시스는 G90 블랙 공개와 동시에 G90의 연식변경 모델 '2024 G90'도 출시해 판매에 들어간다.

2024 G90은 ▲고스트 도어 클로징 ▲무드 큐레이터 등 고객 선호 사양 기본화 ▲이지 클로즈 시스템(후석 도어 제어 버튼 추가) ▲프로젝션 타입 후진 가이드 램프 ▲차량용 소화기 신규 탑재 등 사양 개선 및 안전·법규 사양 추가로 상품 경쟁력을 더욱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G90 블랙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 'BLACK THE SUBLIME'을 오는 4월14일까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제네시스 수지'에서 운영한다.

'BLACK THE SUBLIME'에서는 G90 블랙 차량 전시뿐 아니라 블랙 디자인 콘셉트와 연계된 단색화 작품 전시 및 제네시스 시그니처 티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돼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제네시스만의 독창적인 현대(hospitality)를 경험할 수 있다. /임채만 기자

## 현대차 'TEAM HMC' 레이싱팀 8년 연속 후원

### 방송인 양상국·배우 조재운 등 4명 구성... '현대 N 페스티벌' 참가

현대자동차가 'TEAM HMC(Hyundai Motor Club)' 레이싱팀을 8년 연속 후원한다.

현대차는 25일 "최근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우석 부사장, TEAM HMC 레이싱팀 김주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TEAM HMC 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모터스포츠 대중화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아마추어 레이싱팀인 'TEAM HMC'를 후원하고 있다.

'TEAM HMC'는 현대차 동호회인 '현대모터클럽' 회원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레이싱팀으로, 2017년 창단 이후 KSF 아반떼컵, 현대 N 페스티벌 등의 대회에 꾸준히 참가해 왔다.

올해는 8년 연속 드라이버로 참가하는 방송인 양상국을 필두로 배우 조재운, 일반인 드라이버 2명 등 총 4명이 팀을 이뤄 '현대 N 페스티벌' 아반떼 N2 클래스에 참가한다.

"현대 N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모터스포츠 대회로, 2024년에는 아이오닉 5 N으로 진

행되는 국내 최초의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eNI'를 비롯해 '아반떼 NI', '아반떼 N2' 등 세 개의 클래스로 운영된다.

2024 '현대 N 페스티벌'은 4월부터 11월까지 인제스피드יום, 용인스피드웨이,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총 6라운드로 치러진다.

현대차는 TEAM HMC에 ▲드라이빙 수트 및 팀복 ▲팀 브랜딩 및 차량 랩핑 ▲차량 관리를 위한 전속 미케닉 팀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회 기간 중 현대차의 신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현대모터클럽 회원 중 일부를 초청해 대회 관람, 투어 등으로 구성된 1박 2일 패키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 N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모터스포츠 대회로, 2024년에는 아이오닉 5 N으로 진

행되는 국내 최초의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eNI'를 비롯해 '아반떼 NI', '아반떼 N2' 등 세 개의 클래스로 운영된다.

2024 '현대 N 페스티벌'은 4월부터 11월까지 인제스피드יום, 용인스피드웨이,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총 6라운드로 치러진다.

현대차는 TEAM HMC에 ▲드라이빙 수트 및 팀복 ▲팀 브랜딩 및 차량 랩핑 ▲차량 관리를 위한 전속 미케닉 팀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회 기간 중 현대차의 신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현대모터클럽 회원 중 일부를 초청해 대회 관람, 투어 등으로 구성된 1박 2일 패키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 N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모터스포츠 대회로, 2024년에는 아이오닉 5 N으로 진

## 현대차그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차량 지원

### 공식 의전용 G90 등 119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상 첫 아프리카 대상 정상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공식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25일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식 의전 차량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 김일범 부사장과 정기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현대차그룹은 오는 6월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및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부대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네시스 플래

그십 세단 G90 77대와 렉서리 중형 세단 G80 42대 등 총 119대를 공식 의전 차량으로 지원한다.

참석 정상들은 산업, 통상, 자원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아프리카 지역 각국 및 국제기구 정상급 내외, 주요 기업 대표 등 약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상회의에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제네시스 브랜드의 경쟁력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는 동시에 현대차그룹의 뛰어난 제품 경쟁력과 기술력을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상가 매매 (상무지구)	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p>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p> <p>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p> <p>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p> <p>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p> <p>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p>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용가능 (룸, 노래홀, 홀덱)</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 최저가 3억6천</p> <p>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8억3천</p> <p>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 최저가 27억</p> <p>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p> <p>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p> <p>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p> <p>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p> <p>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010-6670-9800	062-382-5500	